

한국어 상호 표현(Reciprocal Expressions)의 의미

상호성 술어와 배분적 양화사의 의미 기여를 중심으로

조지은 · 남승호 · 이정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lin1@snu.ac.kr · nam@snu.ac.kr · cleee@snu.ac.kr

The semantics of Korean Reciprocal Expressions

Jieun Jo · Seungho Nam · Chungmin Lee
Dep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지금까지 상호 표현(reciprocal expressions)이나 상호성(reciprocity)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영어의 'each other'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한국어의 상호 대명사 '서로'는 'each other'와 달리, 그 자체로 배분성(distributivity)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배분 표현들과 공기함으로써 상호성을 구체화한다. 특히, 배분적 양화사는 상호 표현이 쓰인 문장에 강한 상호성(strong reciprocity)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한국어의 상호성 실현에는 함께 쓰인 술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술어가 대칭적(symmetric)이거나, 상호 대명사(reciprocal)'서로'를 논항으로 취하면, 문장은 일차적으로 상호성을 갖게 된다. 또한, 술어가 반가법(anti-additive)함수로서의 의미 특성을 갖는 경우는, 논항이 복수 연결 명사구로 구성되었을 때, 논항을 그룹(group)으로 해석하는 것을 선호한다. 본고는 상호성 술어(reciprocated predicates)와 배분적 양화사의 의미 기여를 중심으로, 한국어 상호 표현의 다양한 의미·통사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상호성의 개념이 고정적이거나 문맥에 따라, 임의로 정해지는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함께 쓰인 배분적 양화사나 술어의 의미 특성에 따라 합성적으로(compositionally) 실현되는 것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1. 서 론

본고는 한국어 상호 표현의 다양한 의미·통사적인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국어 상호사 '서로'는, 영어를 비롯한 인구 제어의 상호 대명사들과 달리, 배분소(distributor) 기능을 하는 부분을 분리해 낼 수 없으며, 다양한 배분적 표현과 공기 가능하고, 이를 통해 상호성이 더욱 구체화된다.

Dalrymple et al.(1998)은, 'each other'와 같은 상호 표현은 Heim et al.(1991)이 말하는 것 같은 유일하게 고정된 강한 상호성(strong reciprocity)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라고 보고, 문장의 상호성은 실제 세상에 대한 지식과 상호성 술어(reciprocated

predicate)의 선택에 민감하다고 주장했다. 본고는 이러한 Dalrymple et al(1998)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한편, 한국어 상호 표현이 서술어의 종류, 함께 쓰인 양화사, 부정극어 등과 함께 문장의 상호성을 결정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는, 한국어에서 상호성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요소인 '서로'의 의미와 분포 특징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서술어의 특징이 상호성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4절에서는 여러 배분적 양화사와 배분 표현(e.g. 배분 몫 '씩')이 상호성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5절에서는, 상호성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서로'의 의미와 통사

한국어의 '서로'는 배분성을 명확하게 하는 기능¹⁾과 상호성을 실현시키는 두 기능을 갖는다. 문장(1)은 전자의 기능을 하며, '서로'는 비논항 위치에 있고, 문장(2)는 후자의 기능을 하며 '서로'는 논항 위치에 있다.

- (1) 민이와 진이는 서로 자기 자랑만 했다.
 (=민이는 자기 자랑만 했고, 진이도 자기 자랑만 했다.)
- (2) 민이와 진이는 서로를 사랑했다.
 (=민이는 진이를 사랑했고, 진이도 민이를 사랑했다.)

또한, 상호사 '서로'는 아래 (3)과 같이 비대칭적인 타동사와 쓰일 때는, 상호성 실현에 필수적이지만, 대칭 동사와 쓰일 때는, (4)처럼 수의적이다.

- (3) 민이와 진이는 서로 미워한다.
 (4) 민이와 진이는 (서로) 경쟁한다.

서술어가 같아도, 상호성 술어의 논항, 혹은 상호 대명사 '서로'의 선행사가 갖는 통사 형태에 따라 상호성이 부여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상호성 술어의 논항이 갖는 통사 형태는 다음과 같다.

- (5) a. 단수명사-와/과(and) 단수명사
 b. 단수명사-와/과(and) 복수명사
 c. 복수명사
 d. 복수명사-와/과(and) 복수명사
 e. 복수명사-이전/도/또는 복수명사-이전/도
 f. 단수명사-와/과 단수명사-와/과 단수 명사

'모이다'와 같은 집합적 술어는 위의 (a)와 같은 형태를 논항으로 갖지 못한다. 그리고, 논항으로 (d)와 같이 복수 명사구가 연결되

1) 홍재성(1985)는 이와 같은 구문을 경쟁구문으로 분류하였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상호 표현과 기능은 매우 유사하지만, 일본어에서 '서로'와 같은 기능을 하는 'tagaini'는 이와 같이 경쟁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어 나오는 경우에는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논항이 개체합(sum)으로 해석될 지, 그룹(group)으로 해석될 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3.2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 서술어의 특징과 상호성

3.1. 대칭 술어

다음의 표1)은, 동사의 유형(type)과 술어의 대칭성(symmetry)을 기준으로, 술어를 분류한 것이다.

표1)

	자동사 혹은 동사구 (1항술어)	타동사(2항술어) 혹은 3항술어
유형type	<e,t>	<e,<e,t>>, <e,<e,<e,t>>>
대칭성	상호성 실현 (A군 술어)	상호성 실현 (B군 술어)
비대칭성	배분성 명확화 (비논항 위치의 '서로') (C군 술어)	'서로'와 함께 쓰일 때 상호성 실현 (D군 술어)

위의 표1)에서, A,B,D 군 술어들이 상호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상호성 술어이다. A,B군 술어들은 대칭 술어로서, '서로'가 없이도 상호성을 실현시킨다. 서술어의 대칭성²⁾은, 상호성 실현의 충분 조건이 된다. 그러나, 대칭 술어라도, '함께'와 공기하는 경우는, 아래 (6)과 같이 상호성을 갖지 못한다.

- (6) 준이와 선이는 이번 시험에서 함께 싸웠다.

A군 술어의 통사 형태와 의미 해석 방식은 다음과 같다.

<p>(i) {N1 와 N2는} (서로) R $(N1 \& N2)R = N1RN2 \text{ or } N2RN1$ (R은 대칭적이므로, 정의에 따라 $N1RN2 = N2RN1$.)</p>

- 2) G가 A에서의 관계일 때, 만일 $\forall x,y \in A, (x,y) \in G \leftrightarrow (y,x) \in G$ 이면 G를 대칭적이라고 한다.

- (7) 선분 m과 선분 n은 서로 평행하다.
 = 선분 m은 선분 n에 평행하다. 또는,
 = 선분 n은 선분 m에 평행하다.

A군 술어의 종류에는 '평행/나란/일치/경쟁/비슷하다', '다르다', '싸우다', '친구/적/짝/동료/자매이다' 등이 있다.

B군 술어의 통사 형태와 의미 해석 방식은 다음과 같다.

- (i) {N1와 N2는} (서로=N3)(를) R
 $(N_1 \& N_2)RN_3 = N_1RN_2 \text{ or } N_2RN_1$
- (ii) N1는 {N2와 N3를} (서로) R
 $N_1R(N_2 \& N_3) = N_1RN_2N_3 \text{ or } N_1RN_3N_2$

- (8) 나는 시험지와 답안지를 서로 포갠다.
 =나는 시험지를 답안지에 포갠다.
 =나는 답안지를 시험지에 포갠다.

B군에 속하는 술어들은, '만나다', '답다', '혼동하다', '포개다, 겹치다' 등이 있다.

D군 술어의 통사 형태와 의미 해석 방식은 다음과 같다.

- (i) {N1와 N2는} 서로(=N3)(를) R
 (R 은 타동사(2항 동사))
 $(N_1 \& N_2)RN_3 = N_1R'N_2 \& N_2R'N_1$
- (ii) N1는 {N2와 N3를} 서로(=N4)에게 R
 $N_1R(N_2 \& N_3)N_4 = N_1R'N_2N_3 \& N_1R'N_3N_2$

- (9) 준이와 선이는 서로 밀었다.
 = 준이는 선이를 밀었다. &
 선이는 준이를 밀었다.
- (10) 나는 준이와 선이를 서로에게 소개했다.
 = 나는 준이를 선이에게 소개했다. &
 나는 선이를 준이에게 소개했다.

D군에 해당하는 술어들은, '좋아하다', '사랑하다', '비난하다', '소개하다' 등이 있다.

3.2. 개체합 선호 술어 vs. 그룹 선호 술어

상호성 술어의 논항이 복수 연결 명사구일 때,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따라서, 상호성 술어의 논항이 개체합(sum)을 선호하는 지, 그룹(group)³⁾을 선호하는 지가 결정된다. 만일, {정치가들} = {민주당 의원들} U {공화당 의원들} = {흑인 의원들} U {백인 의원들} 이라고 하면, (11a,b,c)는 의미가 모두 같으나, (12a,b,c)는 의미가 모두 다르다.

- (11)a. 정치가들은 의견이 서로 다 비슷했다.
 b.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이 서로 비슷했다.
 c. 흑인 의원들과 백인 의원들의 의견이 서로 비슷했다.
- (12)a. 정치가들은 의견이 서로 다 달랐다.
 b.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c. 흑인 의원들과 백인 의원들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11)과 같은 의미 특성을 지니는 서술어들은 개체합(sum)을 선호하는 술어들로 분류되며, (13a,b)의 술어들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술어들은 (13c)와 같은 의미특성을 갖는다.

- (13)a. '같다', '비슷하다', '가깝다(가까이하다)', '좋아하다', '친하다', '평행하다', '답다', '동의하다' 등
 b. 그룹을 선호하는 술어의 부정형
 ex) '다르지 않다', '멀지 않다' 등
 c. 상호성 술어의 의미값이 P일 때, 임의의 두 그룹 X,Y에 대해 $P(X,Y)=1$
 iff $\forall x,y \in X \oplus Y, P(x,y)=1$

이에 반해, 아래 (14a,b)의 술어들은 그룹(group)을 선호하는 술어들로 분류되며, (13)의 술어들과 어휘적인 반대 관계(lexically

3) 개체합(sum)과 그룹(group)의 정의는 Landman(1995) 참고

antonym)를 형성한다. 이러한 술어들은, (14c)와 같은 의미 특성을 갖는다.

- (14) a. '다르다', '멀다', '싫어하다', '싸우다', '대립하다' 등
 b. 개체함을 선호하는 술어의 부정형 :
 ex) '같지 않다', '닮지 않다' 등
 c. 상호성 술어의 의미값이 P일 때,
 임의의 두 그룹 X, Y에 대해
 $P(X, Y) = 1 \text{ iff } \forall x \in X \ \& \ \forall y \in Y, \ P(x, y) = 1$

주목할 점은, 논항을 그룹으로 해석하고 자 하는 술어들이 다음과 같이 반가법(anti-additive)함수⁴⁾로서 해석된다는 점이다.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

- (15) 1반 아이들은 영어나 수학을 싫어한다.
 ↔ 1반 아이들은 영어를 싫어하고, 1반 아이들은 수학도 싫어한다.
 (16) 1반 아이들의 집은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멀다.
 ↔ 1반 아이들의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멀고, 1반 아이들의 집은 지하철역에서도 멀다.
 (17) 1반 아이들은 영어나 수학을 좋아한다.
 →/→ 1반 아이들은 영어를 좋아하고, 1반 아이들은 수학도 좋아한다.

(15)나 (16)과 달리, (17)의 '좋아하다'는, 반가법(anti-additive) 함수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것은, (15)가 1반 아이들로 구성된 하나의 그룹이 영어와 수학을 싫어한다는 의미를 갖는 반면, (17)은 1반 아이들로 구성된 개체함이 영어와 수학을 싫어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생기는 의미 특성이다. 즉, (17)은 어떤 1반 아이들은 영어를 좋아하고, 어떤 1반 아이들은 수학을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Zwarts(1990)에 의하면, $\langle A, \leq \rangle$ 와 $\langle B, \leq \rangle$ 가 부분순서일 때, A에서 B로 가는 임의의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f는 반가법 함수이다 : A의 임의의 원소 α, β 에 대해, $f(\alpha \vee \beta) = f(\alpha) \wedge f(\beta)$

3.3. 분리 술어

분리 술어 역시 상호성 술어이며, '나뉘다', '분리하다', '구분하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술어는, 복수 연결 명사구가 술어의 논항일 때, 논항으로 그룹을 선호하는 의미 특성을 갖는다.

{민주당 의원들} U {공화당 의원들} = {흑인 의원들} U {백인 의원들}이라고 할 때, (18a,b)는 의미가 같지 않다.

- (18) a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이 서로 나뉘었다.
 b. 백인 의원들과 흑인 의원들의 의견이 서로 나뉘었다.

그러나, 그룹만을 논항으로 선호하는 다른 술어들과 달리, 각 그룹의 개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대일 대응쌍(pair)에 대해 상호성을 부여할 수 없다.

3.4. 집합적 술어

집합적 술어 역시 상호성 술어이며, '모이다', '무리 짓다', '한 팀(/조/가족/식구)이 되다' 등이 여기에 속한다. 논항으로 그룹을 나타내지 않는 단수 연결 명사구가 오는 것이 어색하다.

- (19) ? 준이와 선이가 (서로) 모였다.

또한, 아래(20)에서처럼 논항으로 개체함을 선호하는 술어들과 유사한 의미 특징을 보인다. 즉, (18)에서와 같은 조건일 때, (20a,b)는 의미가 같다.

- (20) a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국회 의사당에 서로 모였다.
 b. 백인 의원들과 흑인 의원들이 국회 의사당에 서로 모였다.

3.5. 짝 짓기 술어

논항이 지시하는 두 그룹의 개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대일 대응쌍(pair)에 대해 상호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상호성 술어들을 의미한다. 아래 (21)의 예문에서 보듯이, '결혼하다', '짝 짓다', '어울리다', '바꾸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은 술어들은 (21d)와 같은 의미 특징을 갖는다.

- (21)a. 중국 여성들과 한국 남성들이 서로 결혼했다.
 b.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서로(의) 자리를 바꿨다.
 c. 아이들의 모자와 신발 색이 서로 짝 어울린다.
 d. 상호성 술어의 의미값이 P 이고, 논항이 지시하는 두 그룹이 A, B라고 할 때, $P(X,Y)=1$ iff there is a one-to-one and onto function f_p from X into Y such that $P(x,y)=1$ iff $f_p(x)=y$.

4. 배분 표현과 상호성

4.1. 양화사, 부정극어와 상호성

배분적 양화사나 부정극어 '아무도'는 강한 상호성(strong reciprocity)을 보장한다. Fiengo and Lasnik(1973) 에 따르면, 강한 상호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geq 2 \text{ and } \forall x,y \in A(x \neq y \rightarrow Rxy)$$

4.1.1. '누구나' 와 상호 표현

- (22)a. 우리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누구나 서로 친하다.
 b. 우리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누구나 서로 미워한다.
 (23)??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은 누구나 서로 (한 팀이 되었다./결혼했다./나뉘졌다.)

'누구나'와 함께 쓰인 상호성 술어의 논항은 (22a,b)와 같이 술어의 의미 특성에 상관없이 상호성 술어의 논항으로 개체함을 선호하고, 가장 강한 상호성을 보장한다. 한편, (23)

에서 보듯이 분리 동사나, 집합적 술어, 짝짓기 술어와 함께 공기하기 어렵다.

4.1.2. '각각'과 상호 표현

아래 (24)의 문장은 의미가 중의적이지만, (25)의 문장은 명확한 상호성 의미가 포착된다.

- (24)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서로 세 팀으로 나누어서 시험에 참여하였다.
 (25)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각각 서로 세 팀씩 나누어서 시험에 참여하였다.

상호성 술어의 논항이 복수 연결 명사구일 때, '각각'이 '서로'와 함께 쓰이면, 아래 (26a,b)와 같이 술어의 의미 특성에 상관없이 논항으로 그룹을 선호하며, 각 그룹 내부에서 강한 상호성을 보장한다.

- (26)a.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각각 서로 의견이 비슷했다.
 b.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각각 서로 생각이 달랐다.

또한, (27)에서 보는 것처럼, 그룹과 그룹간의 상호성을 실현하지는 않는다.

- (27) 의사들과 약사들이 각각 서로 싸웠다.
 ≠ 의사들이 약사들과, 약사들이 의사들과 서로 싸웠다.

4.1.3. '아무도'(누구도)와 상호 표현

- (28)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은 아무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

복수 연결 명사구가 '아무도'와 함께 쓰이면, 위 (28)와 같이 논항으로 개체함을 선호하고, 강한 상호성이 보장되며, 부정(negation)의 영향권은 항상 좁다.

4.2. 배분뭉 표현과 상호성

Choe(1987)를 따르면, '씩'은 한국어의 배분 뭉을 표현한다. Heim et al(1991)은 영어

의 'each other'를 배분소 'each'와 상호소 'other'의 복합 표현으로 분석하며, 배분소 'each'가 그룹 지칭 선행사 뒤에 필수적으로 이동할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중적인 배분을 막기 위하여 다른 배분 표현과 공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음의 영어 문장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을 비교해 보자.

- (29) The telephone poles are spaced five hundred feet from each other. (Mary Dalrymple et al. p.170 인용)
- (30) a.??전신주들이 서로 500 feet 떨어져 있다.
 b.전신주들이 서로 500 feet씩 떨어져 있다.
 c.각각의 전신주들이 서로 500 feet 떨어져 있다.

(29)와 달리, (30a)는 전신주의 수가 2개 보다 많을 때 배분묘를 표시하는 '씩'이 없으면 어색하다. 일본어의 경우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발견되며 '씩'에 해당하는 'zutsu'가 없으면 어색해진다. (30b)에서와 같이 '씩'을 쓰는 대신, (30c)와 같이 '각각의 전신주들'과 같은 다른 배분 표현을 써도 좋다. 이처럼 한국어의 상호 표현은 배분 표현과 공기함으로써, 상호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5. 결론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보면, 한국어 상호 표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한국어의 상호성은 상호사 '서로'와 술어의 대칭성(symmetry)에 의해 부여된다. 비대칭적이며, '서로'를 논항 위치에 허가할 수 없는 경우는 문장에 상호성을 실현할 수 없다.

둘째, 한국어 상호 표현은 배분성을 포함하지 않으며, 다양한 배분 표현(eg. 배분묘 '씩')들과 공기함으로써 오히려 상호성을 구체화시킨다.

셋째, 복수 연결 명사구가 상호성 술어의 논항일 때, 배분적 양화사인 '누구나'나 '각각' 그리고, '아무도' 같은 부정극어와 서술어

의 의미 특성에 따라 상호성의 적용 영역(eg. 개체합, 그룹, 일대일 대응쌍)이 결정된다. 논항으로, 개체합을 선호하는 술어들과, 그룹을 선호하는 술어들은 서로 어휘적인 반의 관계를 형성하고, 특히 그룹을 선호하는 술어들은 반가법(anti-additive)함수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어에서 술어의 의미 특성과 배분적 양화사를 비롯한 배분 표현들은 상호성의 적용 영역(eg. 개체합, 그룹, 일대일 대응쌍)과 정도(eg. 가장 강한 상호성)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 기여를 한다. 만일, 문장 중에 배분적 양화사가 있으면, 술어의 의미 특성보다는 이들 배분적 양화사가 상호성 실현 양상에 더 많은 영향을 주지만,, 배분적 양화사가 없으면, 술어의 의미 특성이 상호성 실현 양상을 결정한다.

참고 문헌

- [1] 홍재성, 1985, 『현대 한국어 동사 구분 연구』, 탑출판사.
- [2] Heim, I., H. Lasnik, and R. May, 1991, 'Reciprocity and plurality', *Linguistic Inquiry* 22(1) 63-101
- [3] Levin, Beth,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4] Choe, Jae-Woong, 1987, *Anti-quantifiers and a Theory of Distributivit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 Amherst.
- [5] Dalrymple, M., Kanazawa, Y. Kim, S. Mchmbo, and S. Peters, 1998, 'Reciprocal Expression and the concept of reciprocity,' *Linguistics & Philosophy* 21: 159-210.
- [6] Fiengo, R. and Howard Lasnik, 1973, 'The logical structure of Reciprocal Sentences in English', *Foundations of Language* 9(4), 447-468.
- [7] Keenan, E., 1992, 'Beyond the Frege Boundary', *Linguistics & Philosophy* 12: 437-64.
- [8] Landmann, F., 1989, 'Groups I' and 'Groups II', *Linguistics & Philosophy*

12.

- [9] Langendoen, D. Terence, 1978, 'The Logic of Reciprocity', *Linguistic Inquiry* 9 : 177-197.
- [10] Winter, Yoad, 1998, Flexible Boolean Semantic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Utrecht OTS.
- [11] Yoon, E., 1996, 'Total and Partial Predicates and Weak and Strong Interpretations', *Natural Language Semantics* 4.
- [12] Zwarts, F., 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Negative Polarity,' in Busemann, S. (ed.), *Views on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II*, Berlin.